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문화연대,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 방안 포럼

지난 7월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공문화기반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취지의 지원협력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감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공교육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9월 5일(금) 광화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동연(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이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기초발제 하였다.

이동연 소장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별로 공공문화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확충되고,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중요한 운영 원칙 중의 하나가 문화시설을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만, 국내의 공공문화 기반시설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의 배움터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거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입시 위주의 교육체계, 획일화된 교육방법, 사설교육의 범람, 예체능 교육의 상대적 부실로 인해 공교육은 근대 산업사회 이래 형성된 절대적인 지위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들은 여러 가지로 모색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기회들은 학교를 즐겁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나 공교육의 정상화의 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작업은 부족한 학교의 부대시설 여건으로 인해 반드시 주변의 문화기반시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 역시 프로그램과 운영콘텐츠의 빈곤에 시달리고 좋은 시설이 지역에 환원되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바, 공공문화기반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 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주요한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것들을 공교육 내에서의 문화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기본방향과 조건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국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운영현황은 5개 광역시별로 구분하고 그 대상은 공공문화기반시설 중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시/구민), 대형공연장, 문화의 집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고 설명했다.

‘문화교육’의 개념 자체는 세 가지 수준에서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최상위 범주로서 21세기 새 교육이념의 지평을 여는 차원, 둘째, 발달단계에 따른 새 학제와 새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영역들의 관계를 재 조직화하는 원리의 차원, 셋째, 개별 교과목의 내용의 재 조직화 원칙의 차원이라고 하였다. ‘문화교육’은 곧 새 교육이념, 새 교육과정과 새 교과영역의 편성, 새 교과내용 편성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별 공교육 연계사례에 대해서는 우선 “박물관·미술관의 문화교육 실태와 연계방안”에 대해 채은영(문화사회연구소) 객원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채 연구원은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중 학교연계 프로그램 유형에는 현장 학습·학교 단체 관람 프로그램, 대여 프로그램, 박물관·미술관 여름학교, 교사 워크숍,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소개하

였다. 채 연구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주 5일제 근무, 교육제도에 따른 현장 학습 증가 등으로 인해 박물관·미술 성격에 따른 편차가 심하며, 초등학생 중심으로 편중되는 교육 프로그램, 단순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방학용 특별 전시 프로그램의 성행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에만 90여 곳의 박물관·미술관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곳 역시 서울 중심이며, 기타 지역은 부산 10곳, 광주 9곳, 대전 11곳, 춘천 3곳 등 수적으로도 열악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의 경우 단순 교육 프로그램에다 예산 및 인력 또한 빈약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 또한 대학 박물관의 경우가 프로그램의 양과 질적 면에서 절대적으로 빈약하다고 언급하였다. 대학박물관의 경우도 아직 예산 및 인력 부족과 더불어 대부분 방학중 휴관이나 평상시 개관 시간이 교내 학생을 제외한 관람객이 관람할 수 없는 시간인 경우가 많았으며, 사립의 경우도 개점 휴업 상태인 곳이 적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공교육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심효정(한국도서관협회) 사서가 발제 하였다. 심 사서는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어떻게 공교육 부문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제하였다.

심 사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도서관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정보활용 능력 향상 및 올바른 정보문화 생활화,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미술전시회 또는 음악감상회나 발표회, 영상영화, 전통 또는 지역사회관련 프로그램, 여가 및 취미교육 등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서교실이고,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

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문화프로그램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고,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독서교실을 실시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독서회, 동화구연, 강습회 등이 의외로 비중이 낮은 것은 프로그램의 성격상 장기적인 계획과 운영을 필요로 하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담당사서의 부족, 예산 부족,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공공도서관에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공공도서관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동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제를 도출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모두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학교도서관 두 부문간 개별적인 역량 강화와 함께 상호핵심역량의 집중과 활용,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기초문화기반시설의 문화교육실태와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김종필(문화현대 시민자치문화센터) 간사가 발표하였다. 김 연구원은 문화기반시설에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양적인 문제나 공교육과의 연계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중추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단순히 문화기반 시설과 공교육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몇 개를 제시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통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면 그 바탕에는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기반 마련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약간의 변형을 통해 공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교육과의 전면적인 연계가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학교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한다든지 프로그램 기획시 인근 학생들의 수용자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교육과의 접촉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공연예술시설의 문화교육 실태와 연계방안”에 대해 신성용(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신 연구원은 문예회관에서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드물고 특히 초등생, 중등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립문예회관은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설령 있다고 해도 ‘청소년 음악회’ 정도여서 문화적 지기반이 약한 지방에서는 공립문예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현실이라고 하였다. 현재 건립된 문예회관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세계적 수준’, ‘국제적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장들이라며 중요한 것은 그런 문화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지역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대는 문화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문화예술의 직접체험과 생산의 증대가 요구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면서 ‘문화권리’와 ‘문화복지’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화의 시대를 이어가고 키워갈 우리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암기할 수 있는 지식만을 강조하는 교육풍토로 인해 전혀 ‘비문화적인 여건’에 처해있다고 현실을 비판하였다. 따라서 문예회관들마다 특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과 문화회관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연결고리를 통해 공연의 기획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관객과 예술가를 성장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기획하여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기반시설과 공교육 연계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류승준(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발제 하였다. 류 상임 연구원은 본 연구는 공교육과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현재 문화기반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해외의 모범적 프로그램 예시, 그리고 공교육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주된 논의 주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의 강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각각 맡아야할 역할 분담, 지역의 교육 주체와 문화예술가, 문화정책 전문가 등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구성 방안 등의 논의를 더욱 정치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더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지역 사례조사라든지 문화기반시설의 확산 및 리모델링 방안 등의 예시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아가기에 앞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교육 당사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교육 지표의 개발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구 목록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문화예술정책 강화가 공교육 내의 문화예술교육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들이야말로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후속 연구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글 : 심효정, shjcap@hitel.net).